

제주4·3수형생존인 8명 재심 청구

오늘 제주지법에 제출... 1명은 일반재판 수형인 지난 1월 18명 재심재판서 승소하며 관심 이끌어

속보=두번째 재심 재판에 나설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지난달 27일 첫 만남을 가진(본보 9월 30일자 4면) 뒤 20여일 만에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2시 수형생존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 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에 나설 주인공은

송순희(94·여), 송석진(93), 김두향(91), 김묘생(91·여), 변연옥(90·여), 장병식(89), 김영숙(89·여), 김정주(88·여) 씨 등 8명이다. 이중 장병식 할아버지는 서울, 김정주 할머니는 부산, 변연옥 할머니는 안양, 송순희 할머니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또 송석진 할아버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4·3의 광풍이 몰아치

던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붙잡힌 뒤 모진 고문을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해야만 했다. 혐의는 '내란죄' 혹은 '국방경비법 위반'인데, 형량도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듣는 등 엉터리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27일 본보와 인터뷰를 했던 김두향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군법회의(군사재판)가 아닌 일반재판에 의해 옥살이를 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1차 재심에 나선던 수형생존인 18명은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들이 군·경에 체포된 시기, 군법회의 개최일자 등에 미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며 제주지법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 청구 역시 1차 재심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양동운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1차 재심 재판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 유족들 서울 광화문서 '곤욕' 19일 특별법 처리촉구 서명운동 중 옥설 세례 받아

제주4·3 희생자유족청년회가 자유한국당 대규모 집회가 치러진 날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유족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유족청년회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서명 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유족들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행인들로부터 서명은 커녕 입에 담긴 힘든 옥설을 들어야만 했다.

보수 진영 지지자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4·3유족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우려스러웠다.

광화문 서명 운동에 참여한 유족은 21일 모멸감을 느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북좌파 XX라는 사람들, 늘상 듣는 욕이었죠"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제주4·3유족청년회는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4·3유족회 주관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이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서명 운동에 나섰다.

70년 한을 품고 산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삭발까지 감행했던 터였다. 청년회는 이같은 결의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 곤욕을 치른 것이다.

당초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자유한국당의 대규모 집회를 고려해 서명 운동을 할지 고민도 했었지만 실행에 옮긴 결과는 4·3유족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다.

자유한국당의 집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쯤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광화문에 모여드는 집회 참가자들의 싸늘한 반응 때문에 서둘러 서명 운동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 뒤인 20일 열린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 촉사를 통해 "우리 시어머니가 제주출신"이라고 강조하며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대해 도민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GM잔디 승인서 수출 따른 경제효과 기대"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연구소 발표회서 언급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가 개발한 제조제저항성 GM잔디에 대한 재배 승인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최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성과교류회'에 참석해 성과 발표회도 나눴다.

2008년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된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아열대 GM잔디 개발'을 과제로 9년 동안 학술연구와 인력양성을 벌였다. 후속 지원 사업에 뽑힌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지난 6년간 '아열대 고품질 생명공학 작물 육성과 실용화' 과제를 수행해왔다.

제주대는 이번 발표회에서 특히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제조제저항성 GM잔디의 내용을 관심있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차관보는 "GM잔디의 재배승인이 이뤄지면 국내 잔디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잔디 수출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의 GM잔디 재배가 성사될 경우 국내 최초로 승인되는 GM작물이 된다.



한 어르신들의 고단한 하루 21일 아침 한 어르신이 보행용 유모차에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싣고 힘겹게 걸어 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음란물 20만회 유포 30대 징역 2년 6개월

해외에서 20만번 넘게 음란물을 유포,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30대에 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1억1228만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김씨는 올해 4월 2일 베트남 호치

민시 빈탄군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 2017년 8월 22일부터 올해까지 25개 사이트에 총 24만 1995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올린 동영상 가운데 88건은 본인 의사에 반해 찍은 영상이었다.

김씨는 음란동영상을 판매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사이트를 통해 약 1억1228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항·포구 소화설비 보강

서귀포시는 항·포구 23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소화설비 보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중 주요 항·포구 55개 소화기 보관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대형소화기(축압식·차륜식), 분말소화기 등 소화기 보관상태 및 작동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제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실시하고 미설치 취약구간은 신규 시설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어선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제2공항 공론화는 제주도민 분열 유발" 응답 주민 기자회견



제주시 응답동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도민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태석 제주도의회의

장은 2012년 6월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임 당시 제주신공항 건설촉구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이제와서는 공론화를 핑계로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0년 동안 응답동 주민들은 제주의 관문이라는 생각으로 항공기 소음 고통을 감수했다"며 "제주공항 확충과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지않고 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의견은 지금이라도 응답동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늦추지 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빠른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 학부모교실' 개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오는 24일 '제6회 좋은 학부모교실'을 연다.

이번 교육은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미술·색채치료 전문가인 강경숙 광양초 교장이 강사로 나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

모의 역할'을 제목으로 강의한다. 미술치료와 색채심리를 활용해 아이의 마음을 읽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모로서의 바른 양육태도를 배우고 부모와 자녀 간 유대를 강화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앵배추 브로컬리 무우 앵패 배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 브로컬리 앵패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